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학교 급식용 축산물 위생실대 특별점검 실시

농식품부, 제1차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 19일부터 4.21일까지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위생 중앙감시반”이 가동(11개반 33명)되며,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성분규격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의 중앙감시반 특별점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부적합 업소, 위반가능성이 높은 위생취약 업소 및 품목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 급식용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분기별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운영하여 위생취약 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감

시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상습적, 고의적 축산식품 위해사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내산 농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 적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4.7~8일 동안 내린 비와 관련하여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요드와 세슘)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경기, 강원 등 전국 34개 시·군에서 재배되는 시금치, 상추 등 10개 채소류 품목, 40건을 수거하여 4.8일부터 4.12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농산물 중 37건은 방사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3건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내의 미량(^{131}I : 1.28~1.72Bq/kg, ^{134}Cs + ^{137}Cs : 1.24~4.75Bq/kg)으로 조사되었다.(붙임 참조)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 세슘(^{134}Cs + ^{137}Cs)370 Bq/kg, 요오드(^{131}I) 300Bq/kg(유 및 유가공품 150 Bq/kg)

검출된 3건의 경우, 가장 많이 검출된 시금치를 기준으

로 매일 50g씩 약 60년 섭취시 흉부 X-ray 1회 촬영시에 노출되는 방사선량과 유사할 정도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 모니터링체계(연간 200건)에서 정기검사체계(매주 10건씩 검사)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산 축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해안·제주도 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원유(原乳) 검사에서 현재 검사가 완료된 10건(제주) 전부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시료채취 계획 건수(총80건) : 경기 10, 강원 25, 전남 5, 경북 15, 경남 15, 제주 10

아울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대상(10품목)에 참조기 등 연근해산 및 원양산 수산물 6개 품목이 추가된다.

- 검사대상에 추가된 수산물은 참조기, 소라, 김, 미역, 다시마 등 연근해산 5개 품목과 원양산 꽁치 등이다.

※기존 국내산 검사대상 품목 - 연근해산(7종) : 가자미, 대구, 청어, 오징어, 옥돔, 갈치, 고등어 - 원양산(3종) : 명태, 다랑어, 상어

※4.11일 기준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23건 전량 불검출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하여 향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농림수산 식품부, 각 검사기관 홈페이지 및 농식품안전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농촌진흥청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시너지' 기대

농진청, 축산물 HACCP기준원과 MOU 체결

농촌진흥청은 21일, 축산물 HACCP기준원(원장 석희진)과 '축산농장 HACCP 기술발전 및 보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축종별 HACCP 연구 협력, 기술보급 전산망 개발, 공동사업 발굴 추진, 각종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등을 협력분야로 규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농장단계 HACCP 보급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축산물 안전성을 농장단계부터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종별 및 기능별 종합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개발된 기술은 전국 시·군 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

HACCP기준원은 본원을 비롯해 영남, 호남, 대전 지원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각종심사, 개선,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축산농장 HACCP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두 기관의 협약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여러 면에서 어려운 우리 축산업을 선진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함은 물론,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견인함으로써 HACCP 제도의 탄생 배경인 우주인 건강식품에 걸맞게 국민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작지만 강한 '축산경영체' 육성한다

농촌진흥청, 축종별 강소농 육성 모델 개발·보급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작지만 강한 축산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축산분야 '강소농' 육성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소농 육성 추진단'을 지난 4월 24일 발족했다.

보직경험이 있는 축종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소농 육성 추진단'은 축산경영체 유형에 맞는 맞춤형 R&D 패키지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6개 유형의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축산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본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도 축산 관련연구기관, 축협, 축산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기술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강소농 육성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강소농 추진단이 중요시 하는 농촌현장 접근지원으로는 대상 경영체 선정 및 기술지원 협의체 구성, 대상 경영체 컨설팅 및 경제성 분석, 경영마인드 제고의 명품교육을 통한 축산경영체 역량강화, HACCP 등 가축질병 예방 및 이동 방역 상담 등으로 그동안 개발된 기술들이 축산분야 강소농 육성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위생방역본부

• 방역본부,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2010년 사업실적 및 2011년도 사업계획(안) 원안 의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3월 31일(목)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안)과 2011년 사업계획(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역본부는 2010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의심축 신고시 초동방역팀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이동통제, 시료채취, 역학농가 예찰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지원, 이동통제초소 지원, 소독지원, 매몰지 사후관리지원, 축산농가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안내 등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확산방지 및 조기근절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에서도 주요가축전염병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순회점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문제 위주의 의심축 보고를 통한 430여건의 법정가축전염병을 검색하였으며,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은 2010년 비발생되어 전국 청정화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환경측정장비를 활용한 농장 사양관리 및 환경개선택지를 통한 농장생산성 향상과 가축질병 발생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혁신사업으로는 출장소단위까지 산하기관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제고하고 행정역량을 결집하였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201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 통합조사에서 93.1점을 획득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사업계획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근절을 위하여 구제역, 소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

오제스키병, 뉴캐슬병 등 주요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하여 192천여호 1,230천여두의 시료를 채취하며, 가축전염병 조기검색을 위하여 342천여호에 대한 농장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본부는 울릉군 소전염병청정화사업 재현업무 수탁과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0%농가 방문교육 등의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aT, 네덜란드 공항에 대형 스크린광고 및 홍보부스 설치

유럽 4대 공항 중 하나인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에 한국음식을 알리는 대형 스크린 광고가 걸린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하영제)는 연간 유동인구가 4,600만명에 달하는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형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대형 스크린은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뒤 식당, 카페테리아 등 휴게시설이 집중된 중앙 라운지에 위치하고 있어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T는 단순한 광고에 그치지 않고 공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식 한국식품 홍보부스를 마련, 공항 이용객들에게 직접 맛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식행사는 유럽에 수출되는 면류, 음료류, 스낵류, 소스류 등을 위주로 실제 소비촉진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aT는 2009년에 영국 현지인 마켓인 ASDA에 한국식품을 성공적으로 입점시킨 이후 독일 REAL 마켓에도 한국식품 입점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홍보행사는 한국식

품이 유럽 현지시장에 전파되는데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로테르담 aT센터 지사장은 “유럽에는 아직 한국식품을 모르는 잠재 소비자가 매우 많다”면서 “이번 홍보행사의 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에서도 이러한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

농협하나로클럽,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18일부터 전국 13곳 매장에서 전수검사 시작

농협은 4월 18일부터 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 등 전국의 대형 하나로클럽 13곳에 방사능 측정기를 비치하고,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직원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휴대하고 매장에 있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시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고객이 특정 상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곧바로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와 현장에서 검사를 해 준다.

농협은 검사를 통해 방사능 오염이 의심하는 상품이 발견되면, 즉각 매장에서 전량 회수하여 농협식품안전연구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일부터 전국 농협판매장에 설치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즉시 전파해 농협 매장에서 오염이 의심되는 물품의 판매를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농협은 우선적으로 4월말까지 전국 55곳의 대형하나로클럽 매장에 방사능 측정기를 비치하고 방사능 검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